



2018학년도 경찰대학 1차시험 (국 어)

※ 총 12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 ① 오늘 저녁에는 생선으로 졸일을 만들었다.
- ② 좌수(坐睡)는 ‘앉아서 쉴’을 뜻하는 말이다.
- ③ 만들새를 보니, 정성을 들인 것이 분명하다.
- ④ 진정한 봉사는 다른 사람의 알음을 바라지 않는다.
- ⑤ 눈이 내리고 땅이 얕으로 말미암아 길 떠날 생각을 접었다.

2. <보기>의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라 표기된 것은? [3점]

—<보기>—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① 오뚜기, 개구리
- ② 더펄이, 뽕과리
- ③ 깔쭉기, 깎두기
- ④ 흘쭉이, 얼룩이
- ⑤ 빼주기, 누덕이

3. 국어 생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문: ‘부끄러워 않다’가 맞는 말인가요,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맞는 말인가요?
답: 보조 용언 ‘않다’는 형용사, 동사 뒤에서 부정 표현에 쓰이므로, 형용사인 ‘부끄럽다’의 부정은 ‘부끄러워 않다’와 ‘부끄러워하지 않다’를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 ② 문: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를 발음할 때 [안녕히]와 [안녕이] 중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답: 한자어나 복합어에서 모음과 ‘ㅎ’ 또는 ‘ㄴ, ㄹ, ㅇ, ㄷ’과 ‘ㅎ’이 결합된 경우에는 ‘전화[저냐]’에서와 같이 ‘ㅎ’이 탈락한 대로 발음합니다. 이에 따라 ‘안녕히’는 [안녕이]로 발음합니다.
- ③ 문: “벌에 쏘였다.”가 맞습니까, “벌에 췌였다.”가 맞습니까?
답: 피동사 ‘쏘이다’의 어간 ‘쏘이-’ 뒤에 어미 ‘-었-’이 붙으면, 줄여서 ‘쏘였-’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쏘이였다’의 준말로 ‘쏘였다’만이 가능합니다.
- ④ 문: ‘시래기죽’이 맞나요, ‘시래깃죽’이 맞나요?
답: ‘시래기’와 ‘죽’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 말이 [시래기쭈/시래긴쭈]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 규정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시래깃죽’과 같이 적습니다.

- ⑤ 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은 예의가 없어 보이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요?

답: ‘이 정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다.’와 같은 문장에서의 주체인 ‘이 정보’는 높임 대상이 아니어서 서술어에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가 맞습니다.

4. 부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런 일은 결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 ② 잠을 꽤 사람은 절대로 나만이 아니었다.
- ③ 그가 남긴 작품은 비단 이 그림 한 가지뿐이었다.
- ④ 석이는 오직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 ⑤ 오늘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

5. 타동사 ‘벗다’의 반의어가 아닌 것은?

- ① 신다 ② 붙다 ③ 지다 ④ 쓰다 ⑤ 까다

6. <보기>의 예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우리 {나중에 / 다음에} 또 봅시다.
나. 그들은 {나중을 / *다음을} 위하여 저축을 한다.
다. 이 {다음은 / *나중은} 노래할 순서이다.
라. 20 페이지 {다음은 / *나중은} 21 페이지이다.
마. 우리 집 {다음 / *나중} 집은 커다란 이층집이다.
*표는 비문법적임을 뜻함.

- ① ‘가’를 보니 ‘나중’과 ‘다음’은 전혀 다른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군.
- ② ‘나’를 보니 ‘나중’은 ‘알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덧’의 의미로 쓰이네.
- ③ ‘다’를 보니 ‘다음’은 ‘이번 차례의 바로 뒤’의 의미로 쓰이네.
- ④ ‘라’를 보니 ‘나중’은 ‘다음’과는 달리 순서를 전제로 하고 있군.
- ⑤ ‘마’를 보니 ‘다음’은 ‘나란히 있는 사물의 맨 마지막 것’을 뜻하네.

7.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내용을 적절히 정리하여 구체화할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먼저 예상 독자를 정해야지. 예비 대학생과 대학 신입생이 주된 독자가 되겠는걸.
- ② 어떤 내용을 담을까? 대학 생활에 대해 쓰는 것이니 먼저 대학의 재정 상태, 대학의 학과별 인원 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겠지.

- ③ 글을 쓰기 위한 글감을 조사해야지. 전공별 교과 과정, 학교 편람, 대학생 동아리 안내, 장학 안내 등을 알아보아야겠군.
- ④ 어떻게 내용을 풀어 갈까? 고등학교와의 공부 방식의 차이, 전공별 특성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시간 활용 방법 등도 써야겠어.
- ⑤ 어떻게 글을 마무리할까? 전문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교양인으로서의 소양을 함께 갖추기 위한 대학 생활 전략이 있어야 함을 강조해야지.

8. <보기>의 (가)는 《월인석보》의 앞부분에 실린 《훈민정음》 언해본이며, (나)는 《월인석보》 권10의 일부이다.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

중국 소리에서의 잇소리는 치두음과 정치음이 구분됨이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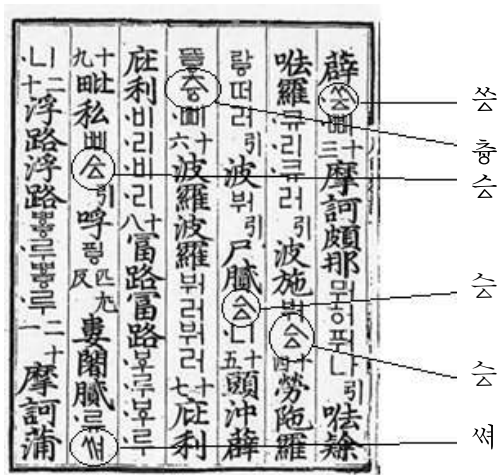
𠂇 𠂆 𠂇 𠂆 𠂇 글자는 치두의 소리에 쓰고

ㅈ ㅊ ㅋ ㅌ ㅍ 글자는 정치의 소리에 쓰니

어금니와 혀와 입술과 목소리의 글자는 중국 소리에 통하여 쓴다.

- 《훈민정음》 언해본(현대어 역)

(4)



- 《월인석보》 권10

- ① (가)의 ‘ㄴ ㅌ ㅍ ㅈ ㅊ ㅅ ㅆ ㅍ ㅈ ㅊ ㅅ ㅆ’와 같은 글자를 만든 것을 보니 현대 국어에는 없는 발음이 중세 국어에는 있었군.
- ② (나)로 미루어 보니, 《월인석보》에 (가)가 들어간 것은 《월인석보》에 사용된 글자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군.
- ③ 중국어의 잇소리는 중세 국어의 잇소리와 달리 두 종류로 나뉘었군.
- ④ ‘ㄴ ㅌ ㅍ ㅈ ㅊ ㅅ ㅆ ㅍ ㅈ ㅊ ㅅ ㅆ’와 같은 글자는 우리말을 적기 위한 글자는 아니었군.
- ⑤ 창제 당시의 훈민정음은 글자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군.

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그동안 비표준어로 간주되었던 ‘짜장면’이 표준어가 됐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일반 대중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은 ‘짜장면’의 표준어 결정 앞에는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여전히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언중이 선호하는 말과 표준어 규정 안에 있으나 잘 쓰이지 않는 어휘들은 앞으로의 표준어 정책 방향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어문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한 어문 규범의 현실화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규정의 현실화가 어문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규정 개정의 논의에서 벗어나 우리말의 다양성을 살리고 국어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표준어 확대 작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 ① ‘서럽다’와 ‘싫다’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② ‘광주리’와 ‘광우리’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③ ‘가없다’와 ‘가엷다’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④ ‘모조록’과 ‘아무조록’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⑤ ‘거슴츠레하다’와 ‘개슴츠레하다’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10. 다음 문장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지도를 사용하면 비록 초행길일지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 ② 항상 가슴에 명심하여야 할 것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 ③ 하룻길에 삼촌 집에 들러서 물건을 받아 오나라.
- ④ 출더라도 자주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야 해.
- ⑤ 그림을 그리던지 책을 읽던지 마음대로 해도 돼.

11. <보기>는 받침의 발음에 관한 표준발음법의 규정이다.
밑줄 친 발음이 규정에 맞는 것은?

<보기>

제10항 겹받침 ‘ㄲ’, ‘ㄴ’, ‘ㄷ’, ‘ㄹ’, ‘ㄲ’, ‘ㄴ’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으로 발음한다.

다만, ‘뵈-’은 자음 앞에서 [뵈]로 발음하고, ‘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뵓]으로 발음한다.

- ① 넓죽하다[널쭈카다]
- ② 외궂[외곶]
- ③ 없다[엷 : 따]
- ④ 여덟[여덜]
- ⑤ 활다[할따]